

개통 앞둔 목포 해상케이블카 교통대책 마련 박차

4월 19일 개통식...주차장 7곳 1472면 확보 등 혼잡 예방 총력 교통 통제반 운영·교차로 31곳 신호등 연동화·버스 증편 운행

목포시가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한 달 앞두고 주차장 확보·교통표지판 정비 등 총체적인 교통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해상케이블카 전체 공정률은 95%로 지주 17개소와 유달산·고하도 주차장은 공사가 완료됐고 승강장 3개소도 이달 30일까지 공사를 마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

개통식은 다음 달 19일 북항 승강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포시는 케이블카가 개통 시 1일 최대 교통량이 승용차 3323대, 버스 및 기타 277대 등 총 36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들어갔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북항 주차장 453대(대형 15, 소형 438)와 고하도 주차장 395대(대형 15, 소형 380)를 포함해 임시주차장 5개소에 624대(대형 118, 소형 506) 등 총 7개소에 1472면이다.

여기에서 현재 협의 중인 해양대학교 교내 주차장 이용이 확정되면 최고 1722대까지 주차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조성된 노을공원 주차장에 주차라인을 설치해 173면을 확보하고 북항 광장은 노면을 정비해 113면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된다.

이들 임시주차장에는 45인승 셔틀버스 4대가 배치돼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특히 목포시 교통행정과는 이 같은 주차장 확보에도 불구하고 도로여건 상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교통 통제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통제 지점은 북항구간 17개소와 고하도구간 5개소 등 22개소로, 이곳에 통제요원 96명(2교대, 주말 기준)이 배치된다.

또 교통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불법 주정차를 없애 기존 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목포대교 진입로와 산체스모텔, 흥일중 정문, 유달산 승강장 진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교통신호등도 2개소에 추가로 설치된다. 여기에 가장 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하대로 등 7개 구간과 죽교 사거리 등 31개소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신호등 연동화'를 구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 결과는 6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편의 증진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정비해 케이블카 주변 노선인 9번은 6회, 15번 노선은 10회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케이블카와 천사대교를 운행하는 신규 노선은 신안군 공영버스가 운행될 계획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목포시는 교통량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교통 분산 대책도 세웠다. 대표적인 목포 진입로인 죽림 JC, 서영암 돌계이트, 목포 IC에 대형 도로 전광표시판을 설치해 우회를 안내하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내비게이션 안내 시 고하도 정거장으로 안내되게 세팅되도록 내비게이션 회사와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이상호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인근 상가 반발과 시민들 민원이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관련 북항 주차장 453대와 고하도 주차장 395대를 포함해 임시주차장 5개소에 624대 등 총 7개소에 1472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사진은 유달산 주차장 전경. <목포시 제공>

속출해 어려움이 많다. 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절

실하다"며 "목포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버스가 알선료에 가격 뛰고 음식 질 저하...부끄러운 맛의 도시'라는 광주일보 보도와 관련 다음 날인 지난 13일 정순주 부시장 주재로 긴급 '북항 회센터 영업주와의 간담회'를 갖고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북항 회센터 호객·바가지요금 근절...친절·위생 강화

목포시보건소, 업주들 간담회 버스가 알선료 10%선 유지 '맛의 도시' 만들기 동참키로

목포시가 맛의 도시 선포·해상케이블카 개통과 관련 북항 상인들의 친절·위생 강화에 총력전을 펴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보건소는 '버스가 알선료에 가격 뛰고 음식 질 저하...부끄러운 맛의 도시'라는 기사(광주일보 3월 12일자 11면 보도)와 관련 다음날인 지난 13일 정순주 부시장 주재로 긴급 '북항 회센터 영업주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발 빠른 대응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와 상인들은 앞으로 버스가 알선료를 10%선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3개 상인회별 이견은 있었지만 호객 행위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해서만큼은 다 같이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희집의 경우 메뉴 판에 '잇가'라는 표시

를 없애고 북항 입구나 식당 입구에 그날 그날 회 가격을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쓰키다시(결들임 반찬) 문제와 관련해서는 쓰키다시 때문에 육먹고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시 보건소는 알선료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22개 업소 가운데 관광버스 유치가 가능한 대형 음식점 14개소에 과장·담당 등 보건소 직원 14명을 지정 배치해 적정가격, 위생상태, 상차림 이행여부, 종업원 친절도 등 '일일 점검 보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담당 직원이 직접 식당을 이용하고 점검·지적사항을 보고토록 한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또 보건소는 1억 500만원을 들여 으뜸 맛 집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을 지원해주고 간판을 정비해주는 등 지원책도 선보였다.

이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우수·우수

·중음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시책을 펴기로 했다.

이와 관련 3차 대책회의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불친절 사례는 감추지 말고 공론화 시켜서 소문을 내 그 식당은 안 가기 운동을 벌이는 등 경쟁력도 필요하다"며 "관광객들의 니즈에 맞는 식단 개발과 구체적인 일정(시점)이 나올 수 있게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북항 상인들 사이에서 "목포시 보건소가 관광객 만족도 조사, 간담회 실시, 지정 담당제 운영 등 강공 드라이브를 펴면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주 강하다"는 말이 나돌아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또 보건소가 북항회센터 이용객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표정'과 '전라도 말투'가 불친절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최대 요인으로 꼽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1차 추경예산 1785억 증액 9174억 편성

목포시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174억원(일반회계 8223억원, 특별회계 95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는 올 본예산 7389억원 대비 1785억원(24.16% 증가)이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예산안은 대양산단 기체 발행을 포함해 케이블카 개통대비 관광객 수용대체 확립과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도시재생 활

성화사업, 전국제전 준비,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위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양산단 지방투자 촉진보조금(45억원) ▲2019 희망근로 지원사업(98억원)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50억원) ▲어촌뉴딜 300사업(34억원)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조성사업(29억원) ▲서남권 친환경수산 종합지원단지조성(28억원) ▲1897개항 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27억원)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20억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20억원) 등이다.

또 도로개설 및 덧씌우기, 해안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 노후화 장실 개축 등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관련 사업을 반영했으며, 대양산단 매입 확약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발행 승인된 지방채 1300억원 중 80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권익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청렴도 향상 기대

목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에 선정됐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 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적인 청렴성 향상 지원정책이다.

올해는 82개 기관이 신청해 34곳이 선정됐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청렴도 향상 정책 일환으로 청렴컨설팅을 신청하기 위해 제

출 자료를 세밀히 준비하고 나누시와 함께 그룹을 구성해 청렴도가 높은 기관인 광양시를 멘토(mentor)로 지정해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목포시 감사실은 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부패역량을 진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멘토·멘티 기관이 참여하는 컨설팅 회의를 통한 청렴도 저조 원인 파악과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 공유를 비롯한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과 토론 등을 기반으로 목포시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위탁운영자 공모 무산된 목포 치매전담 요양원 공모 자격 완화·대상 확대

목포시가 노인치매전담 요양원 신축과 관련, 두 차례나 위탁운영자 공모에 나섰지만 무산되면서 자격을 완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재추진키로 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치매요양 시설의 효율적인 신축 추진을 위해 위탁자가 기부 체납한 부지에 목포시 치매전담요양시설(요양원 70명, 주야간보호 40명 수용 규모)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8년 6월과 8월 2회에 걸쳐 목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재단·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법인을 공개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위탁자 선정, 부지 기부체납, 설계 등 구체적인 업무들이 진행되지 않은 2017년 지원받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목포시 노인장애인과는 3차 재공고 시 위탁운영자 신청 자격을 목포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의료법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목포시의회 보고를 마쳤다.

이와 관련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현재 목포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8개 사회복지시설이 목포시가 아닌 무안이나 영암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차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에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의료법인으로까지 확대해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